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4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얼음 깨기

'감격의 그 순간'

교회행사

다음의 질문을 함께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1_ 인생을 살아가며 느꼈던 감격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나요?

2_ 감정이 뜨거운 신앙 vs 차분히 생각하는 신앙

=> 나는 어디에 가깝나요?

4월

2일 종려주일/성찬식

3-8일 고말기

“고난주간 말씀과 기도”

9일 부활 주일

5월

7-28일 오렌지 축제

: 다음세대를 위한

가정과 교회의 콜라보

경배 찬양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1_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아둔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아들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2_ 그 누가 주의 재물을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하셨네
이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3_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대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아제 사망은 무덤이 다투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대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Chorus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앓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선교

[박영주 선교사]

캄보디아

1. 박영주, 김송희 선교사가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충만하도록
2. 낄땡스프 여호수아센터 통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3. 새롭게 개척할 포티마을에 온전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소식

한문장 큰 올림

1. 부활 주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2. 결혼 예비학교

하나님 나라 가정을 준비하는 복된 시간에 결혼예비 커플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정 : 5/13-6/10 (5/27 휴강) 시간 : 14:00 - 19:00

예수 부활의 권능을 입어
다시 사는 것,
이보다 더 장엄하고
강력한 희망은 없다

팀 켈러 (1813-1843)
리디머 교회 설립 목사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20절)

그 감격과 놀라움이 가득 차,
달려가던 여인들의 발걸음은 얼마나 기뻐올까?

안식일이 지난 첫 새벽,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슬퍼하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만난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아니라, 빈 무덤과 주님의 천사였지요. 천사는 예수님을 찾으러 온 여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하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5-6절)

말씀을 들은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 가운데에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려러 갑니다. (8절) 이 여인들 안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감정들이 교차했겠지요. 바로 이 때가, 첫 증인이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달려나간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달려가는 중,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향하여 ‘평안하냐’ 물으시고,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경배합니다. (8-9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 마태복음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과 첫 증인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는, 옛 역사 속에 있었던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함께해야 할 사명이요, 삶을 말하고 있지요.

12

진정 부활을 믿고,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요?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며,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우리
이기를 기대합니다.

1_거짓을 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1-15절)

예수님께서서는 말씀대로 부활하셨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과오가 드러날까봐 돈으로 경비병을 매수하지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전하도록 합니다. 경비병들은 사실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명예를 생명으로 여기는 군인이었지만, 권력과 돈의 유혹 앞에 양심을 팔아버렸지요.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려는 어리석음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강박한 마음으로 인해 진실 앞에 기득권을 쫓고 있습니다.

[생각] 진실을 목격함에도, 이를 외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_의심 속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5-10절, 16-17절)

주님께서서는 약속하신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 중에는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심은 무조건적인 부정이나 불신이 아닌, 사람의 논리를 뛰어넘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과정으로서의 의심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서는 친히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여인들의 목격담과 여러 증거를 통해 그들의 믿음은 점점 세워집니다. 제자들과 여인들은 의심과 무서움이라는 과정을 지나 진리 앞에 서게 되며, 이들은 자신이 ‘부활의 증거’가 되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눔] 1) 예수님과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할 수 있다면,
꼭 드리고 싶은 의문 / 질문은 무엇인가요?
2)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과정이 있다면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3_“가서 제자 삼으라” 명하십니다. (18-20절)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삼으라고 명하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메시아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인 칼과 권력, 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 순종을 통해 이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나눔]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 오늘의 삶에 따를 수 있을까요?
내게 맡기신 [제자 삼아야 할 사람, 삶의 자리]를 나누어봅니다.

나눔

주일 말씀 [부활의 이야기가 부활의 삶으로 / 마태복음 28:16-20]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점을 나눕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에서 같이 세워갑니다.

거짓과 진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분명한 진실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앞드리게 하옵소서.

기도

의심을 넘어

지금도 있는 나의 질문과 의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제자 삼으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가서 제자 삼으라’의 명령을 듣습니다. 제자 삼는 자리로 이제 함께 나아갑니다.